

동네방네



김천 치유의 숲

‘2020 웰니스 관광지’ 김천·영덕 신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KTO)가 공동으로 추진한 ‘2020년도 웰니스 관광지’에 ‘김천국립김천치유의 숲’과 ‘영덕 인문힐링센터 여명’ 등 도내 2곳이 새로 선정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을 넘어 건강과 힐링(치유)을 핵심으로 하는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9곳을 추가로 선정해 최근 ‘웰니스 관광 48선’으로 확대해 지정했다. 웰니스관광이란 웰니스(웰빙+피트니스)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을 말한다. 전국 지자체와 지역관광기관이 추천한 3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콘텐츠 독창성, 친밀성, 상품화 발전가능성, 개별관광객 접근성 및 단체 수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와 3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갖춘 9곳이 이번에 새로 선정됐다. /경북=문봉현 기자

안동시, 농촌지역에 LPG배관망 구축

도시가스 수준 안정·편의성 도모

안동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료비 절감과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성·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길안면 송사1리 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7개

농촌지역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북후면 도촌1리, 일직면 귀미1리, 임하면 임하2리 등 농촌지역 마을 3곳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연료 대비 30% 정도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상주농기센터, 과수화상병 대응체제 가동

종합상황실 운영 등 확산 방지 총력

상주농업기술센터는 사과·배에 치명적인 병해인 ‘과수화상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확산 방지 및 신속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센터는 전 직원이 예찰반을 편성해 5~7월 3개월 동안 사과·배 전면적을 집중예찰하고 있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능가 자체 예찰을 통한 즉각적



과수 화상병

신고 및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Weather forecast for June 11th (Thursday) with temperature range 31~21°C and a map of South Korea showing weather conditions in various regions like Yeosu, Seoul, and Gyeongju.

이철우 지사 공약이행 90% ‘우수’ 일자리 창출·첨단산업 육성 성과

(경북도)

경북도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공약과제 100건 중 90건 ‘우수 이상’ 스마트 문화관광 인프라 ‘매우 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경북도의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이 이철우 경북지사의 지난 2년간 공약추진 사항 90%에 대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내렸다.

평가단은 지난 9일 도청 화백당에서 총회를 열고 공약실천계획서와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비교해 100건의 공약과제 중 90건을 ‘우수 이상’으로, 8건을 ‘보통’, 2건을 ‘미흡’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민선7기 출범 당시 공약을 구체화했던 ‘잡아위원회’ 소속위원 중 28명으로 구성됐다.

공약 수립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한 것이다.

평가단은 경제, 복지, 관광, 농촌, 상생협력의 5개 분과로 나눠 지난 5월부터 1·2차 서면평가를 진행했고 이번 총회를 열어 평가를 마무리했다.

평가단은 지난 2년간 경북도가 좋은 일자리 5만5000여개를 만들었고 특히

장애인 일자리는 1600여개를 만들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경북도가 11조5000억원의 투자유치, 구미산업단지 스마트 산단 지정, 포항 강소형 연구개발특구와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경주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 점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출범시키고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한 것과 ICT를 활용한 임청각 및 왕오전축국전 콘텐츠 제작, 전통문화 디지털 체험존 조성 등 코

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것도 ‘매우 우수’로 인정받았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수출액 12억 달러를 돌파하고 베트남 등 해외시장을 개척한 것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웃사촌시범마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새로운 기반을 조성해 청년유입에 나선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위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61곳, 마을돌봄터 8곳,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8곳, 공동육아나눔터 17곳을 설치하고,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의 치매안심병원을 개원하고 경북치매보듬마을 85곳, 예쁜치매쉼터 334곳을 운영한 일도 인정받았다.

경북도는 앞으로의 공약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와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건설, 동해선(포항~동해) 단선전철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 상생 협력,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도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코로나 재확산에 지역 관광산업 타격

곡성군 일평균 4015명 방문, 전년동기비 83% ↓

17일간 진행 예정 장미 축제 취소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객도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취소돼 관광지 입장객이 급감, 전남 곡성군의 관광산업이 크게 타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장미축제가 취소되면서 축제장인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객도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곡성군은 축제 취소에도 장미가 만개한 시기 축제장을 개방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5월 11일~6월 7일 사이 불과 6만8천261명이 방문하는 데에 그쳤다.

이는 일평균 401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지난해 10일 축제 기간 일평균 2만



지난달 26일 오후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꽃을 피운 장미 뒤로 KTX가 지나고 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됐으나 공원의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2천647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17.7% 수준에 불과했다.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입장 수입도 급감, 지난해 10일 축제 기간에 9억 7천여만원의 입장 수익을 거둔 것에 반해 올해는 축제 예정 기간이 일주일 늘었음에도 3억400여만원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눈앞에 현실이 된 관광산업 타격에 곡성군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곡성 장미축제는 축제 전후 방문객까지 합하면 한해 20만~30만명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곡성의 대표 관광상품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수협, 어촌지역에 청년 일자리 제공

‘동해안 청년 디딤돌 일자리 사업’ 5개 수협서 2개월 동안 직무체험

경북도와 동해안수협이 어촌지역에 청년들의 정착기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동해안 청년디딤돌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

협에서 직무체험을 하게 해 어촌지역에 청년들의 정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해안 지역에 청년유입을 촉진하고 고령화와 어촌인구 감소를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되면 7~8월 여름방학기간(2개월) 동안 지역의 5개 수협(포항수협, 경주시수협, 구룡포수협, 강구수협, 후포수협)에서 금융지원 보조, 위관장과 수협산하 제조업체 근무 등 다양한 직무체험을 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다. 신청은 이메일과 우편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문봉현 기자